



# 時 計 塔

SIGETOP



2013년 7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0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 晟 煥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李 元 澤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 제31차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서울의대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동문 여러분께 내년, 2014년 5월에 실시할 제31차 학술대회가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Alaska Cruise로 결정이 된 것을 알립니다. 선상에서의 학술대회, 머리와 가슴이 푸르게 열리는 Alaska Cruise!

이번 Convention에 참석하시면, 웅장한 알래스카의 대자연과 마주하여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에 심신을 정화시키고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 그리고 광활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상 최후의 땅 Alaska에서 다시 한번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원시 빙하와 각종 야생 동물들을 비롯하여 눈 앞에서 광대하게 펼쳐지는 빙하의 장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ruise 배로 태초의 빙하 곁으로 다가가 거대한 빙벽을 보며 피요르드(Fjords)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흰 눈과 빙하로 둘러진 청갯빛 바다를 바라보며 휴양과 관광을 겸한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을 함께 하시니 얼마나 풍요로운 Event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래스카 여행을 다녀오셨겠지만 귀한 동문들과의 따뜻한 우정의 순간을 위하여 모두 참석해 주시면 더욱 더 알찬 여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흥겹고 기쁜 동문들과의 만남을 위해 떨림과 설렘으로 이번 Convention을 계획해 보십은 어떠실까요.

방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신속한 등록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반 켄벤션 일정표와 안내 말씀 및 여흥과 기항지 관광 안내서(Excursion) 등에 관한 모든 필요한 Information 들은 등록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동창들이 함께 모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환상의 7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이 갔다 온 몇 주가 지나면 들렸던 곳이나 즐거운 순간들이 가슴속에서 모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동창회 주관으로 사진과 Video를 직접 촬영하여 동문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아름다운 추억들을 순간 마다 기록해 영원히 보관 될 DVD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회장, 김 성 환 드림





# 就任辭

신임회장 김성환 (71)



71년도 졸업한 김성환, 42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장으로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미주 동창회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2년부터 조직되어 이제는 40여 살이 넘는 중년의 연륜이 되었습니다. 전여 명이 넘는 동문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 이주하여 정착 하셨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새로 영입되는 동문수가 현격히 줄어 미주 동창회의 존재를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회원들의 노화 현상과 새 회원의 감소로 언젠가 동창회가 새로운 변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힘들 것만 같은 위기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주 대학병원에서 한 달 여 동안 해외실습을 선택한 본과 4학년생 10여 명 중 7명이(동부 5명, 서부 2명) 지난 2차 대의원회(6/29/13)에 참석하였고 두 세 명의 동문이 내년도 matching 준비 중이라는 Green Project 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며 매우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후배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의 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침묵, 끝없는 학술과 전문인으로 성장 그리고 우리 모교와 이웃을 향한 장학, 봉사, 자선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회원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소속해있는 동창회의 well-being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제 31차 Convention과 학술 대회는 시애틀에서 2014년 5월 16일 출발하는 7박8일 간의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정한 Alaska Cruise를 오성 급의 최고급 Celebrity Line에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해왔던 Convention과 Post-Convention Program을 한데 묶어 Vacation 겸 CME Program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번에 Silver project를 같은 알래스카 크루즈로 정한 이유도 동창회 식구 모두를 한자리에 마련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미 다녀오신 여러 동문 분들이 많겠지만 동창회에서 이번에 준비한 컨벤션과 학술대회를 참석하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동문들과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게다가 CME가 포함되어있어 tax 혜택까지 받으시니 꼭 참석하셔야 할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calendar에 mark해 두어 빠지지 말고 동참해 주시고, 특히 동기회의 reunion으로 이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것 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재무로서 3차에 (이사회 두 번, 대의원회 한 번) 걸쳐 동 서 부 동시 영상회의를 전 회장 문대욱 동문과 김일영 동문의 주도로 시도된 것을 보고 동과 서의 간격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회원 명부 발행이후 새 명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의 수정된 정보가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 되어있기에 마무리가 되는대로 가까운

# 離任辭

회장 김일영(71)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사를 쓰고 동문회장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나가고 이임사를 쓰게 되니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것이 실감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대 동문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같이 도우며 또 즐거울 때나 좋을 때에는 같이 즐기며 유종의 묘를 거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학술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걱정 말라며 나서서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임원진들, 특히 박진국 부회장, 김성환 재무, 서기 총무로 수고해 주신 이원택 동문, 또 프로그램을 맡아서 열심히 차질 없게 수고해 주신 Mrs. 김성환, Non CME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맡아주신 최광휘 동문, 또 혼자서 가장 중요한 CME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조세진 동문, 골프를 맡아 수고하신 이창우 동문, Convention Chair로 총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홍서 동문, 또 멀리 한국과 동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학술대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시어 귀중한 강의 해주신 모든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non CME 감사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면서 또한 심금을 울리는 귀중한 섬김을 나누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풍족치 않은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출선하여 도네이슨 하여 주신 기부 천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가 거의 다된 동창회 명부를 발간치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게 될 유감으로 생각하며 내년에는 꼭 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회장으로 수고하실 김성환 동문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고 많은 사람으로 도움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창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며 여러 회원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앞으로의 저의 삶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중에 혹시 서운한 일,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장래에 새 주소록 발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문 한 분 한 분도 우리 동창회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람 있고 재미있는 우리 모두의 동창회가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각 동문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3-2014 Officer and Committee Chairs

	Name	Home	Office	Cellular Phone	Address	E-Mail
President	Kim, Sung Hwan (71)	(323) 965-1712	(323) 913-4920	(323) 979-1512	Los Angeles, CA	sunghwkim@yahoo.com
President Elect	Seo, In Suk (73)	(201) 871-9191	(718) 250-8894	(551) 587-3212	Englewood Cliffs, NJ	9002@gmail.com
1st Vice President	Chon, Ken Kyungbae (75)	(562) 697-6070	(562) 698-6266	(562) 713-3982	La Habra Heights, CA	kbchon@hotmail.com
2nd Vice president	Shim, Mark Inbo (83)	(201) 568-5056	(201) 569-1806	(917) 561-8972	Englewood Cliffs, NJ	markinboshim.md1@gmail.com
1st Secretary	Choi, Andrew K. (76)	(818) 952-7120	(323) 737-1717	(626) 818-4013	La Canada, CA	thevipsurgery@gmail.com
2nd Secretary	Ahn, Sang-Hoon (94)	(213) 388-0908	(213) 402-3077	(213) 245-0788	Los Angeles, CA	doctahn@gmail.com
Treasurer	Koh, Yong Kyoo (73)	(714) 374-8564	(714) 635-6272	(714) 319-0880	Huntington Beach, CA	yongkyookoh@gmail.com
<b>Committee Chairmen</b>						
Finance	Han, Dong Soo (66)	(949) 675-3086	(714) 751-5621	(714) 916-1525	Newport Beach, CA	dshanmd@gmail.com
Scholarship	Seo, In Suk (73)	(201) 871-9191	(718) 250-8894	(551) 587-3212	Englewood Cliffs, NJ	ins9002@gmail.com
Fund Raising	Cha, Min Young (82)	(310) 659-1967	(213) 480-7770	(323) 702-3486	Beverly Hills, CA	minycha2003@yahoo.com
Scholarship Fund M.	Lee, Myunghee (66)	(914) 961-2821	(914) 787-1000	(914) 844-7439	Tuckahoe, NY	DocM4@aol.com
Research & Fellowship	Cho, Sechin (71)	(410) 750-9188			Woodstock, MD	cho3gene@gmail.com
Green Project	Lee, Francis Youngin (86)	(201) 569-1895	(212) 305-3293	(201) 248-1630	Englewood Cliffs, NJ	fl127@columbia.edu
Publication	Kim, Damian Byungsuk (59)	(718) 238-7077	(718) 616-5335	(917) 696-7107	Brooklyn, NY	dbkimmd@gmail.com
By Laws	Rho, Yong-Myun (55)	(914) 738-4511	(914) 738-4511	(914) 282-3711	Pelham Manor, NY	ymrhond@optonline.net
Advisory & Exchange	Lee, Manuel Man-Tack (58)	(215) 968-3897	(215) 913-7519		Newtown, PA	mntlee@hotmail.com
Nominating	Kim, Il Young (71)	(626) 355-0526	(323) 662-1175	(213) 407-2014	Arcadia, CA	ilykim@gmail.com
Silver Project	Park, Jin Kook (71)	(947) 715-6854	(213) 380-3306	(213) 384-9753	Newport Coast, CA	ysparkkp@hotmail.com
Office Management	Kang, Paul Changhong (71)	(201) 573-0695	(201) 894-4787	(551) 206-5253	Woodclif Lake, NJ	pplkng@hotmail.com
Charity	Choi, Young Ja (66)	(203) 629-5373	(203) 384-3025	(203) 733-9937	Greenwich, CT	ychoikim@gmail.com
2014 Convention Chair	Rhee, Chang Woo (71)	(714) 441-3515	(323) 726-1222		Buena Park, CA	
Scientific Chair	Kang, Yoogoo (71)	(856) 235-2128	(215) 995-2765	(609) 923-4115	Moorestown, NJ	yoogoo.kang@jefferson.edu
Non-CME	Lee, Won Tak (71)	(562) 697-6214	(562) 697-6214	(562) 743-1436	La Habra Heights, CA	

## Board of Directors"as of June 29,2013"

<b>2011-2014</b>			Huh, Sun Haeng (64)	(201)767-7841	sun.h.huh@gmail.com
Sohn, Young Zin (62)	(714)508-7811	yzsohn@gmail.com	Choi, Soon Chae (66)	(908) 561-9240	soonchoi@aol.com
Kim, Taewoong (63)	(760)324-2535	twjskim@earthlink.net	Kim, Hongsuh (69)	(818) 618-9094	thk320@gmail.com
Cho, Young Kap (70)	(614)890-5655	ykcho1345@yahoo.com	Lee, Nicholas S. C. (70)	(562) 494-3146	nickobgyn@yahoo.com
Cho, Sechin (71)	(410)750-9188	cho3gene@gmail.com	Choi, Andrew K. (76)	(818) 952-7120	akchoi52@gmail.com
Kang, Chang Hong (71)	(201)573-0695	tpplkng@hotmail.com	<b>2013-2016</b>		
kim, Sung Hwan (71)	(323)965-1712	sunghwkim@yahoo.com	Lee, Man-Tack (58)	(215) 968-3897	mntlee@hotmail.com
Lee, Won Tak (71)	(562) 697-6214		Jung, Jay Soo (62)	(215) 538-2201	jungjungso@yahoo.com
Auh, Yong Ho (72)	(212)746-2563	yonghoauh@gmail.com	Song, Yung Doo (62)	(215) 576-7209	yungdoosong@comcast.net
Koh, Yong Kyoo (73)	(714)374-8464	yongkyookoh@gmail.com	Han, Ki Hyun (63)	(973) 256-4041	kihan00@yahoo.com
Kim, Dong Hoon (77)	(562)402-4914	dhkim99@yahoo.com	Lee, Hong Bin (63)	(201) 346-4373	drhblee@gmail.com
<b>2012-2015</b>			Kwon, C. Stephan (64)	(718) 815-2393	cstephankwon@yahoo.com
Chae, Kyu Cheul (59)	(973)992-4790	Kyuchaemd@aol.com	Shim, Wan Sup (73)	(610) 353-4533	wansupshim@gmail.com
Lee, Hee Kyung (61)	(516) 767-1346	drhklee@hotmail.com	Moon, Dai Ok (73)	(302) 427-8880	dmoon625@hotmail.com
Kim, Andrew Taiksoo (63)	(702)233-2441	atkim37@gmail.com	Han, Min Woo (75)	(201) 226-9336	tinahan34@gmail.com
Chu, Jai Ock (63)	(201)569-3520	jaiochu@yahoo.com	Baik, S. Andrew (79)	(908) 626-0935	andrewbaik5@gmail.com
Choi, John Joonhi (64)	(863)496-1940	johnjchoimd@yahoo.com			



#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3년 5월 18일 오후 4시(LA), 오후 7시(NJ)  
 장소: LA - meeting, JJ Grand Hotel / NJ - Double Tree Hilton Hotel  
 LA 참석자:  
 김태웅(63) 이성춘(70) 김일영(71) 이창우(71) 이원택(71) 김성환(71) 최광휘(76) 전경배(75)  
 NJ 참석자:  
 노용면(55) 이희경(61) 추재욱(63) 허선행(64) 최영자(66) 강창홍(71) 서인석(73) 문대욱(73) 심인보(83)  
 Proxy:  
 이만택(58) 채규철(59) 김병석(59) 손영진(62) 김택수(63) 최준희(64) 최순채(66) 한동수(66) 이명희(66) 김홍서(69)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조세진(71) 김유식(71) 이희영(71) 박진국(71) 곽승용(71) 오용호(72) 고용규(73) 나두섭(73) 박일우(77) 김동훈(77) 백승원(79) 이영인(86) 조형기(92) 안상훈(94)



- 김일영 회장의 사회로 화상을 통한 서부와 동부 합동이사회를 개최하였음.
1. 성원 점검 후 서부 오후 4시, 동부 오후 7시에 김일영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2012-2013 제 1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시킴.
  3. 김일영 회장의 인사말: 2013-2014 새 회장으로 김성환 현 재무가 회장을 맡을 것을 수락하였다는 소개와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음.
  4.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2013년 SNUCAA 최종 5명의 선발자에 대한 이사회의 Approval을 요청하였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 계속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신 김태웅(63) 이사님께 화상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사를 드림.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training 을 고려하고 있는지 두 항목을 장학지원원서에 첨부할 것을 서울대 학생부에 통보하였음. (제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5. Fund Management committee(이명희 위원장): 서면 보고로 현재의 balance의 보고가 있었음.
  6.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조세진 위원장: 서면 보고): 2011, 2012년 연속 미주동문이 함춘학술상을 수상하였음. 2013년 12월에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을 것임. 7월호 시계탑에 기본자격을 명시한 후보 선정공고가 나갈 예정임.
  7.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서면 보고): 시계탑 40주년 행사에 대한 편집모임의 보고가 있었음.
  8. Charity committee(최영자 위원장): 지난 해에서 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에 대한 한 해 \$3,000의 지원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후 지원 또한 요청을 하였음.
  9. Membership Directory Ad-hoc committee(박진국 위원장): 이원택 총무가 대신하여 발표를 하였음. 현재 미주회원 전체 중 대략의 절반이 채 안 되는 회원으로 부터 직접/간접으로 회원정부가 확인이 되었음. 회원주소록을 위한 모금의 액수가 발간을 위한 필요 액수에 못 미치므로 동창회에 지원요청을 하였음. 현재 미주동창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 재정을 더 확보하며, 회원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을 늦출것을 결정함.
  10. Nominating committee(문대욱 위원장): 지난 몇년간 이사진의 각종 회의 참석 상황을 도표로 발표하며, 이사들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

김일영 회장의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수고해 주신 committee 위원장께 감사사를 전하고, 참석을 해 주신 이사께도 감사사를 전함. 추후 있을 동서부 동시 회의가 좀 더 원활히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침. - 총무: 이원택(71)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소식

### 의대관련 장학기금

김기태(58)-노정욱 장학기금: \$500,000 약정, \$400,000 출연 / 김용재(66) 장학기금: \$500,000 약정, \$300,000 출연 / 김의신(66) 핵의학과학기금: \$250,000 출연 / 이홍표(64)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300,000 약정, \$200,000 출연 / 이안나 장학기금: \$100,000 약정, \$25,000 출연

### 서울대학교미주재단 201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Goldman Scholarship 장학금 (학생당 \$5,000, 20명 총 \$100,000) /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유리, 이준석, 김상훈, 홍성준, 최유인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최지욱, 천석우, 권양은, 김유영, 이용준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지훈, 배정미, 조예상, 이다은, 장하영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이종민, 박지영, 전세린, 강동원, 강정현 / Qualcomm 장학금 (8명 총 \$100,000) / 공과대학원: 이해원, 장서우, 이용희, 최정식, 배수현, 이철민, 강대호, 변성호 / 수의과대학 박홍락 장학금(학생당 \$2,500 2명 총 \$5,000): 김은영, 장윤정 / 수의과대학 이명희 장학금(학생당 \$2,500 2명 총 \$5,000): 김소연, 박지혜 / 의과대학 김용재 장학금(학생당 \$5,000 4명 총 \$20,000): 김정은, 이현택, 고경덕 강영 / 의과대학 김기태-노정욱 장학금(학생당 \$6,000 총 \$6,000): 오문영 / 의과대학 감은섭 장학금(학생당 \$1,000): 박지원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을 기부하여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문의: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58)

#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3년 6월 29일 오후 4시(LA), 오후 7시 (NJ)  
 장소: LA - JJ Grand Hotel / NJ - Double Tree Hilton Hotel  
 LA 참석자:  
 김태웅(63) 김일영(71) 이원택(71) 김성환(71) 박진국(71) 전경배(75) 조형기(92)  
 NJ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이희경(61) 이홍빈(63) 최준희(64) 이명희(66) 강창홍(71) 문대욱(73) 서인석(73) 심인보(83) 이영인(86)  
 Proxy:  
 김웅식(55) 정구영(57) 한성택(57) 채규철(59) 신영철(59) 최종진(59) 전희근(60) 황현상(61) 안창현(61) 여천기(62) 한기현(63) 김택수(63) 손영진(62) 송영두(62) 허선행(64) 주의돈(64) 김태환(64) 정길화(65) 민발식(66) 한동수(66) 최영자(66) 최순채(66) 장한교(66) 이민우(67) 이건일(68) 김홍서(69)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이성춘(70) 김유식(71) 곽승용(71) 이희영(71) 조세진(71) 최영철(71) 최인섭(72) 오용호(72) 김풍영(72) 고용규(73) 이계석(73) 최광휘(76) 박일우(77) 김동훈(77) 백승원(79) 안상훈(94)



- 시작에는 다소 연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화질과 음질의 화상을 통한 합동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
1. 성원 점검 후 서부 오후 4시, 동부 오후 7시에 김일영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동부모임에는 서울대 4학년 summer elective 연수생 5명을 포함 좋은 출석율을 보임.
  2. 2012-2013 제 1차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김성환 회장의 취임인사말과 김일영 전회장의 이임사가 간략하게 있었음. 정식 이임사와 취임사는 7월호 시계탑 본문에 게재될 예정임.
  4. 재무보고 (김성환 재무): 현재은행 잔고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각 부문별 잔고 보고가 있었음.
  5. Scholarship committee(서인석 위원장): 2013년 미주 동창회 와 김태웅(63) 장학생 선발공고가 LA와 뉴욕 한국일보, 서울대학교동창회보 7월호 시계탑 그리고 SNUCAA of NA website에 공고가 될 예정임. 김태웅(63) 장학금 \$10,000을 6월초에 받고 감사 이메일 드림. 다시 한 번 김태웅(63) 장학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드림.
  5. Fund Management committee(이명희 위원장): 지난 5월의 제 2차 이사회의 보고와 대동소이함. 현재 이자율이 낮은 것에 비하여 높은 이자를 유지하는 현 관리에 대한 희망적인 보고가 있었음. 현재 10년 앞을 예상한 투자를 하고 있음. 10년후에도 미주동창회가 계속 건재하기를 바램.
  6.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편집모임에서 상의된 시계탑 40주년 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결과를 보고함. 매 5년 마다 해 오고 있는 문집 출간에 대하여 동창회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관례적으로 원고가 채택된 동문들의 성금으로 보충하고 나머지는 동창회에서 지원을 해왔음. 광고를 통한 자금 마련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문집 출간의 시기는 2014년 7월이며, 7월 15일 시계탑에 공고가 나가면서 문집 출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임. 동창회의 관심과 투고 증대를 위한 시계탑 창간 40주년 파티를 내년 5월에 열릴 제31차 학술대회장인 Alaska cruise 동안 할수 있도록 동창회에 협조를 부탁함.
  7. Nominating committee(문대욱 위원장): 차기회장 및 2013-2016 새 10명의 이사 선출을 위하여 보낸 편지를 발표함. 현 20명의 이사와 새로 추대한 10명의 이사 및 차기회장의 승인을 요청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더 많은 이사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제의와 의논이 있었음.
  8. Green Project committee(이영인 위원장): 서울본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여러 미주 병원에 여름 연수를 하고 있음. 최근 졸업생중 2-3명이 내년에 matching 준비 중임. 여름 연수를 하는 본과 학생 5명이 대의원회 NJ 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그 중에 해사를 1등 졸업한 여학생과 육사 졸업에 대통령 상을 받은 남학생의 인사가 있었다. 대의원회 LA 회의에도 본과 학생 2명이 참관하였음.
  9. Old Business:  
 현재 진행 중인 회원주소록 발간의 두 가지 문제점(회원 정보의 정확성 및 기금 확보)에 대한 토론 후, 새회장 및 임원진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함.  
 마지막 김일영 회장의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동서부의 많은 참석률에 감사사를 드림. 성공적인 영상 동시 회의가 이루어진 제 2차 대의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LA 및 뉴욕 이외 지부들과의 동시 영상 회의 확산을 기대함.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기념촬영한 후 회의를 마침. - 총무: 이원택(71)



서부지역과 영상 회의로 진행중인 대의원회를 참관하는 동부지역 참가자들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 뉴욕지부 소식: '이규용배 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이규용배 골프대회”를 환상적인 날씨의 축복과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와 적극적 도움과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68명의 Golfer들이 Royce Brook 골프장(East Course)의 잔디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으며, 저녁 시상식과 만찬에는 클럽하우스에 72명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과 상품들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조득환(67) 동문이 83타로 2013년도 “이규용배 골프대회”의 남자 챔피언으로 등극하였고, Mrs. 백승원(79)이 91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자 챔피언 컵을 가져 갔다. 캘러웨이 방식으로 계산한 시상식에서 남자부 이상오(78) 동문이, 여자부 Mrs. 김중권(69)이 1등을 하였다. 2등으로는 남자부 한태진(64), 여자부 Mrs. 이만택(58)이 수상하였고, 3등으로는 남자부 조성준(64), 여자부 Mrs. 남궁승(66)이 차지하였다. 장타상에는 여자부 Mrs. 오용호(72), 근접상에는 남자부 최순재(66), 여자부 Mrs. 최순재(66), Straightest 상에는 여자부 Mrs. 윤영섭(63)이 각각 수상하였다.

동기상에는 제일 많이 참석(14분)한 64년 동기회에게로 돌아갔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Hole Sponsor을 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맛있는 점심 김밥을 멀리서 픽업해 오시고, 굿은일들을 도맡아 해 주신 Mrs. 오용호(72)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제 다음 해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갈 때입니다. - 뉴욕지부회장 백승원(79)

## 서울대학교병원 신입병원장 오병희(77)동문 취임

서울대학교병원 정회원 15대 병원장과 오병희(77) 16대 병원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6월 10일 역대 원장 및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병희 신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진단치료 중심의 의료모델에서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창조와 공감 그리고 혁신을 키워드로, 교직원 모두의 마음의 힘을 모아 서울대학교병원의 창조적 미래를 향한 변화를 용기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신간안내: '김마태(52) 회고록과 김말봉 '찐레꽃'

우리 동창회의 창시 멤버이며 4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마태(金鼎燾, 52)선배님의 회고록 “마태김의 메모아”와 그의 장모님(전재금 사모님의 모친)이신 김말봉의 “찐레꽃”이 서울의 ‘지와 사람’사에서 동시에 출간 되었다(2012. 10. 5).

### 마태 김의 메모아 (부제: 내가 사랑한 한국의 근현대 예술가들)

저자의 예술적 성향과 일생토록 詩人墨客 歌人들과의 넓은 교류와 친교의 인연으로 해서, 몇 사람 예술인의 다급한 진료 사례를 바랍같이 언급한 것을 제하곤, 당신의 본업인 의업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접어두고, 270여 쪽에 담은 내용이 수많은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교환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일화로 차있다. 유년시절부터 예술의 감성이 남달랐던 그는 國破山河遷의 장구한 인생 과정에서 배우는 예술가들의 眞髓를 어김없는 직관으로 포착하고 친밀한 인연을 맺어왔으며, 그들과의 교류가 불려온 예술과 문화적으로 윤택한 생애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평소에 좀처럼 언급 하시지 않는 열정과 봉사, 예술에의 사랑이, 명망 있는 외과의사로서 사회에 이바지한 것 보다 못지않고 오히려 능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잠시 내용의 분류를 보면, 1) 나의 정신적 멘토들: 김기림, 김하건, 이상, 2) 끝피 김말봉과의 인연, 3) 평생 이어진 김환기와와의 인연, 4) 뉴욕에서 만난 예술가들의 4부로 구성 되어 있는 이 책은 작가가 서문에서 말한 대로 작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한국이 자랑하는 예술가와 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며 여류소설가 김말봉, 화가 김환기와 부인 김향안, 중학교 시절의 시인 김기림, 이상, 박산문, 정지용, 김광섭, 이은상, 공중인, 소설가 김동리, 손소희, 조각가 한용진, 화가 김하건, 문미애, 김병기, 김찬렬,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성악가 김자경, 목사 김재준 등과 부연된 여러 명인들의 모습이 마태 김 특유의 진솔하고 역동적인 언어로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라사의 소식을 바람을 타고 오는” 일제 말엽 함경북도 경성 중학시절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향 학교 교사로 부임해온 시인이며 평론가였던 김기림의 지성과 매력에 감동했던 소년기로 부터 대학초년 시절에 인기 소설가 김말봉과의 만남으로 열리는 새로운 예술 세계와의 파란만장의 인연과 생애의 이야기는 고국과 미국, 유럽을 오가며 60여년에 이르고 있다.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적 일화의 경지를 넘어서 독자가 쉽게 터득 할 수 있게 간략 명료한 작품 설명과 예술가들의 시도와 시대상황 해설을 가미한 것은 저자의 부단한 탐색 추구의 결실일 것이며 독자들에게 한층 유익한 흥미를 돋구어주고 있다. 연도에 김마태/전재금님 부부의 집이 있는 뉴욕 북부 근교 웨스체스터 카운티 주변으로 한인 예술가들과 애호가들의 주거와 왕래가 불어나고

김환기 부부, 한용진과 문미애 부부, 존 배 부부들을 위시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그들의 지택은 '뉴욕 미술가 마을' 이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큰 예술 부문이 1984년에 창설된 뉴욕한국 음악재단 이야기이다. 마태김은 창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으로서 젊은 음악도들의 발전을 도우며 많은 음악인들과 교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마태김 메모아 2” 를 구상하고 있다는 귀뜸이 있으니 기다려진다.

### 찐레꽃 (김말봉)

1937-8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어 우리나라 여류작가가 쓴 최초의 인기장편소설로서 선봉을 일으켰으며 압도적인 인기로 나양의 紙價를 올린 김말봉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찐레꽃” 이 작가의 서거 51주기를 맞아 ‘지와 사람’사에서 새로 출간 되었다. 현대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달라진 오늘날의 문법으로 약간 수정하여 내었다 하며, 천상병 시인의 평론 ‘김말봉의 찐레꽃론’ 과 발행인 김광우씨의 글 ‘다시 피어난 찐레꽃’ 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6.25 전화가 진행되고 있던 중학시절 친구들과 대본하는 책방에서 구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인기 있는 소설이었다. 천시인은 말한다. ‘찐레꽃’ 은 여류소설가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문학 연구의 불모지였던 김말봉의 문학세계를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중략... ‘찐레꽃’ 에 나타나는 김말봉 문학의 현재적 가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문학성이나 대중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의 현대문학, 연애소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김 발행인은 한 네티즌이 198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우연히 ‘찐레꽃’ 을 읽고 충격적인 감명을 받은 이야기를 인용하며, 1937년대 작가의 문학성이 2012년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현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김말봉은 ‘순수성’ 을 주장하며 소수의 지식인을 위한 글을 쓰던 당대의 문인들을 나무라면서 다수를 위한 글이 아니라면 문학이라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예술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은 1950년대 후반 런던과 뉴욕에서 생겼으며 1960년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일찍이 1930년대에 대중을 위한 문학을 주장한 김말봉은 한국문학의 선구자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 이희경(61)

## 1963년 동기, 모국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지난 6월 30일 버지니아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던 서승표 동문이 病患으로 타계하셨다. 장례는 7월 6일 리치몬드에서 지냈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 섭섭하기 보다는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걱정이 된다.

이번에 졸업 50주년을 맞은 우리 동기는 10월 7일에 모교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3박 4일 남해안 여행, 이어서 또 3박 4일의 동해안 여행을 계획하였다. 10일간의 동남아 크루즈도 계획의 일부이다. 모두 38 동문 부부가 귀국하여 남해안은 27명의 동문 부부, 동해안은 13명 동문 부부, 동남아 크루즈는 다섯 동문 부부가 참가하게 된다.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귀국하는 동문들은 반택용, 장인호와 딸 부부, 장세곤, 조한원, 추재욱, 김태형, 한광수, 한기현, 진병학, 강삼근, 김명준, 김현학, 이행근, 김현철, 김준휘, 김성일, 김광섭, 김승태, 김태웅, 고영희, 권영조, 이종두, 이홍빈, 이능석, 이병준, 이수인, 마동일, 박세록, 임춘수, 신영규, 송용덕, 서경석, 선우건영, 윤진수, 윤영섭, 윤영옥 등이다. 이외에 최찬혁, 신경호, 김택수, 김갑중, 이재명, 선종철, 양찬기, 이기환, 왕규현과 익명의 동문 한 명, 모두 10명이 모교학생 장학금, 모교발전기금에 쓸수 있게 기부금을 보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동기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다.

우리 동기는 120명(여학생 4명)이 입학하여 135명(학사 편입, 유급 등)이 졸업하고, 졸업 후 81명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캐나다에 온 81명 중 그동안 7명이 타계하였고, 6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여러번 편지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동문은 서넛 되는데 편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 주소는 맞는 것 같다. 혹시 이 소식을 듣고 연락주는 동문이 있으면 고맙겠다. - 한기현

## 1973년 동기 모임



Class 73 gathering on June 23rd, 2013.

## 성악가 국영순(66, 이명희 동문부인) 정기연주회

웨체스터 한인합창단은 국영순씨(Mrs. 이명희, 합춘회장)의 지휘로 6월 8일 창단이후 6번째 정기연주회를 웨체스터 연합교회에서 가졌다. 일부 연주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선보이고 이부는 모짜르트의 대관식 미사곡(Coronation Mass)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교회 본당 좌석을 꽉 메운 청중들의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았다. 많은 우리 동문들과 합춘회원들도 참석하였다. 뉴욕한국일보(6월11일)는 ‘하나 된 선율 벅찬 감동 선사’ ‘수준 높은 무대에 관객들 박수갈채’ 라는 제목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Green Project Corner



모교에서 10명의 본과 학생들이 여러 미주 병원에 여름 연수를 왔습니다. 동부에서는 콜럼비아 의대, 템플 의대, 보스턴 등지에서, 그리고 서부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졸업생중 2-3명이 내년에 matching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연수중인 학생 5명이 지난 6월 29일에 있는 대의원회 NJ 회의를 참관하였고, 그 중에는 해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의대에 편입한 여학생과 육군사관학교 졸업에 대통령 상을 받은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같은날 대의원회 LA 회의에도 본과 학생 2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대의원회의를 참관한 학생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 이영인(86)

## NYPH, PM&R 그리고..

정 성 애 (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 콜럼비아 의과대학 선택의학 실습을 준비하며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여 여러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고 느낀 것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선택의학 실습 프로그램이었다. 학부 때는 세계 보건 단체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의대에 오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밖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해외 선택의학 실습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와중에 맥심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USABLE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clerkship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외국 의대생 체험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콜럼비아 의대의 교류 관계로 교내 자체 선발만 통과하면 클럭십 프로그램에 선발된다. 과 선정은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과 원하는 과에 남은 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문제는 교내 선발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선택 의학 실습을 원하지만 클럭십으로 선발되는 학생 수는 제한이 있었다. 학생 선발은 학점이나 영어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인터뷰가 관건이었다. 본과 1학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해외 선택의학실습을 가야 하는 이유와, 콜럼비아 의대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뷰에서 떨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맥심을 통해 알게 된 선배들이 추천하는 해외의학실습의 공통된 장점인 주도적 학습과 열린 토론 문화를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정하였고 이것은 미래 한국 병원에서도 일어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외 대학들 중 콜럼비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best hospitals 순위를 언급하며 많은 본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여 이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교내 선발이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클럭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이나 ESTA와 같은 서류 준비보다도 외국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실습을 도는 것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했고 First aid, ward를 가볍게 읽은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은 것 같다.

그 외에는 병원 어텐딩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열린 마음으로 외국 학생을 대해주기 때문에 큰 준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 NYPH, 콜럼비아 의대생처럼

병원에 가기 전날에는 실습 병동에 미리 답사를 갈 정도로 긴장이 되었다. 제 시간에 못갈까 봐, 제대로 영어를 못할까봐,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대하지 못할까봐,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할까봐 모든 것이 걱정되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PMR 병동을 담당하고 있는 Dr. Sorkin 선생님은 젊고 밝은 분이었고 함께 실습을 돌게 될 4학년 학생들은 Ryan, Jon 그리고 Adam 이었는데 모두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미국까지 실습을 하러 온 학생을 대단하게 생각해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실습 스케줄은 2주의 inpatient & consult와 2주의 outpatient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습 마지막에 실습 중 흥미로웠던 topic을 정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30분간 발표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있었다. 2 주간 inpatient를 볼 때는 학생에게 할당된 환자가 있어서 아침 라운딩 전에 환자를 보고 와서 라운딩 때 교수님 및 레지던트, 학생들에게 내가 맡은 환자에 대해 presentation 하는 것 및 환자에 대한 내용을 EMR에 기록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부차적으로 환자와 대화하고 환자의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에 동참하여 환자가 하는 일을 보고 스스로 그 진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가 동양에서 온 영어도 잘 못하는 학생을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들은 의과대학 학생을 의사처럼 존중해주고 진지하게 자신의 증상과 경과를 말해주어서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Consult는 다른 병동에서 PMR 병동으로 전원 올 환자들에 대해 토의하고 환자들을 만나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생은 주로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질문밖에 없어서 약간 흥미는 떨어졌다.

외래환자는 어텐딩들의 외래를 참관하는 것과 resident clinic에서 환자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주일 동안 닥터 김과 함께 cerebral palsy 환자에게 대한 Botox & phenol injection을 주로 보았는데 이 기간 동안 선생님이 다니시는 Elythedale children hospital에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이 병원은 뉴욕 주에 있는 유일한 특수 장애아동을 위한 독립 병원인데 최근에 보수를 통해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병원이었다. 복도는 아이들을 위해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져 있었고 병실은 매우 넓었다. 치료실도 넓적하고 쾌적해서 내 마음도 치료받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서 닥터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찰하고 보호자를 만나 Botox injection이 필요한 아이들을 정해 NYPH로 데려와 intervention으로 아이들의 spasticity를 완화시켜 주었다. 선생님은 환자 및 보호자와 끈끈한 라보를 형성한 훌륭한 의사라는 점뿐 아니라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미국으로 온 한국인 의사라는 점에서 닮고 싶은 분이였다. 그 외에도 Cornell, MSKCC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MSKCC에서는 Cancer rehabilitation, principles and practice를 저술하신 Dr. Stubblefield의 외래를 참관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

그리고 Resident clinic에서는 한국 병원 실습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학생이 바로 환자의 history taking & physical examination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어텐딩과 치료방침을 토의했다. 환자도 나와의 상담이 어텐딩에게 바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질문에 자세히 답해주었고 상담 후에도 우리나라 환자들이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듯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어서 그 과정들이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 실습할 때는 이미 레지던트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치료 방향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환자를 보고 내가 그 과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resident clinic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다. 이제 본과 4학년 2학기어서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학습 기회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도적인 진료 방법을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실습이 끝나면서 선생님들 앞에서 영어로 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잊을 수 없다. 닥터 김과 함께했던 실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Cerebral palsy & spasticity release를 발표 주제로 정했다. 영어로 하는 첫 발표였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었다. 발표 일주일 전부터는 병원 실습후 콜럼비아 대학 도서관에 가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말을 걸어오는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 앞에서 발표를 연습해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이 느껴지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다. 점심시간에 발표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들을 위해 커피 초코 파운드케이크를 구워갔다. 발표 전에는 많이 떨었지만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막상 발표하면서는 떨지 않았다. 나를 담당했던 Dr. Sorkin 선생님은 첫 영어 발표가 맞냐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고 같이 실습을 돌았던 콜럼비아 학생중 한 명인 Ryan은 you impressed me라고 해주어서 무척 기뻐했다. 실습 중 가장 짜릿한 경험이었다. 영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뉴욕에서 만난 한국 선생님들

한국에서도 병원 실습을 하다 보면 감사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뉴욕에 있는 동안은 짧은 한 달이었는데도

여러 감사한 분들을 뵈었다. 재활의학과 실습을 돌면서 일주일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김혜경 선생님부터 한국에서도 뵈었던 김용정 선생님, 이영인 선생님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혹은 '가족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런데 김혜경 선생님을 뵈고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획득한 뒤 남편 분의 직장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어 미국 의사를 하게 되었다는 선생님을 뵈고 긍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다. 소아 재활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눈도 준 적이 없었다는 선생님이었다. 지금은 칠레, 두바이,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있는 소아마비 아이들을 위한 botox & phenol injection을 교육하기 위해 늘 해외 출장을 다니고 계신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종내에는 선생님을 멘토를 넘어 롤모델로 삼았다.

동아리 맥심을 하면서 이영인 선생님 및 김용정 선생님은 한국에서 만나 뵈는 적이 있었다. 김용정 선생님은 살아온 삶의 과정이 믿을 그대로였다. 점뿐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진실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 매칭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의 연락에도 바로 응답하여 실습 중인 학생들과도 만나게 해주셨고, 매칭 준비 중인 다른 선생님들과도 연결해주셔서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같은 정형외과에 계신 이영인 선생님은 동생분도 뉴욕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직접 당신의 집에 학생들을 초대해 주시고 와인파티를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단지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뿐 아니라 인생을 즐기라고 일반적인 삶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다. 말씀만큼이나 그날은 편하게 소파에 앉고 누워 피아노, 라비앙 호즈 등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뉴욕에서 가장 여유로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다.

### 케네디 국제공항을 떠나는 마음

이 글은 서울에서 쓰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3주 전 뉴욕을 떠나는 JFK에 있는 것 같다. 콜럼비아 클럭십을 위해 교내 경쟁에서 선발되었던 기뻐던 마음과 뉴욕이라는 문화적 축복이 내려진 도시, 의사로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신 감사한 선생님들과 큰 도전장으로 남아있는 USMLE.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들뜨게 만들어 버려서 JFK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았다. NYPH에 더 머물면서 더 challenging한 것들을 해보고 싶었고, 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돌아와 한국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KMLE를 공부하고 있다.

지난여름 동안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꿈처럼 좋았고 그 일들이 서서히 희미해지지만 한 달 동안 콜럼비아 의대 학생이 되어 환자를 만나고 어텐딩과 토론하고 또 한국 교수님들을 만나 당신들이 나눠준 경험을 들은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값진 보물이 되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USMLE를 준비하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서울을 다시 꿈꾸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큰 경험을 하게 해 준 서울대학교와 NYPH 그리고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는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어릴적 동무' 하나, '평생 학우' 서승표를 추모함

이 흥 민(63, 대뉴욕)

승표, 이 사람아, 이젠 좀 이르지 않은가?

우리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 없이, 같은 길 며잖아 간다고는 하나... 이젠 아직 아니지.

당신 세상 떠났단 Such a Sad Reality, 그 소식에, 급히 친구들 circle 에 내 보내 알린 말:

"For SyngPyo's loved ones, I am expressively CONDOLING his passing."

With a deep SYMPATHY,  
HongBinn Lee/ One of such an old friends of his.

이건, 소식 끊겨 한참 모르던 당신, 세상 등졌단 갑작스런 연락에 금방 알린 얘기.

그러곤, 서둘러, 편편이 지난적 생각 - 조의를 담아 동기(한반 친구)들께 들린 것은:

"A 'Passing Thought' / 'A Piece of Remembrance'n Eulogium'."

"Do any'v you, pals, out there, ever remember late SyngPyo's Nickname at the time?"

Yeah, It's "Red"!  
He used to've shown "loud" a smiles on, kinda, "flushed" looking naive Red Face.

I had been thru same schooling with him/from the elementary - middle'n high - to med.

"One of such a real old friends of his."

He did step on the States some behind of us, and he, I understand, studied psychiatry and worked/practiced(?) somewhere in Virginia.

He's been tried in different occasions thru email, seemed working, so far, being of no avail, though.

His Nickname, "Red", rooted from a depraved teasing for his Red Face as a "Monkey's Rear" ain't sure, though, whether of what he'd got from Seoul High or from our Med-School.

(Naive Red Face of wide a smiles →

"Monkey's Rear" → "Red", so forth.)

May our prayers go to his loved ones.  
HBL.

당신 세상 떠난 소식에, 금방 떠오르던 당신 어릴 적 당신 학교 적 모습과, 당신의 별명 'Red' 를 한반 동기 Circle에 묻기를, 다들 여직 기억들을 하는가 하고.

떠오르는 당신 기억으로, 조의를 들린 금방 후에, 택수로 부터, 또 뒤따라 태운으로 부터, 알려진 바, 그 별명의 유래는 근사하게 바로 잡았고.

고등 짝, 장난끼의 Depraved Teasing 대로가 아닌, 달리 해석하고 새로 불친(Nicely revised'n refined) 낭만스런 유래의 그 Nickname.

그걸 유래한 Somerset Maugham의 단편 'Red' 에서, 그 주인공이 Red 였던대로, 늘 당신 얼굴 상기된 듯 붉음으로 애칭처럼 불렀다는.

우린 배웠더라, 그때, 당신 별명 나온 거기서, 맘에 새겨진 구절,

"... , 'Tragedy of Love' isn't the Separation, either by Death or by Leaving for good, but is 'the Indifference'" 라고.

당신의 그 별명이 유래했던 그 단편에: ..., 무관하니 눈 내리깔고 있는, 무척이나 긴 세월 그 탓에 찌들어, 무관심 무표정에 무덤덤한 흥보여인, 옛적 그 지순했던 사람, 근 사십년을 넘어서 천신만고로 찾아와 본 그 순박 지고하던 그 사랑이, 평생을 두고 오 매불망 그려왔던 사람, 그 사람 이었다고는 상상이 안가는 눈 앞엿 모습.

두고, 돌아서 그냥 떠나는 길, 그 지순케 불태웠던 사랑 짝, 그 옛날과 다름없는 집 앞 개울/그 다릴 건느며 뇌이는 말, 그때 그 사랑 짝 젊은이/지금은 늙얼가는 이의 말이 아니었더라.

당신이 더 잘 알질 않았느냐, "사랑의 참 비극은 이별도 사별도 아닌, 그 래, 서로의 무관심함" 이라고.

그걸, 우리, 같은 성장 같은 정서 같은 교육으로, 우리 한창때 똑같이 가슴에 담고 우리 젊음을 키우고 살찌웠을 당신, 그리고 우리.

그중, 우리 누구, 많은 추억 같이 간

직한 친구 있겠건만, 오랜 세월토록 못 봐온 / 이젠 영 떠난이 당신의 옛적, 우리 어렸던 시절을 내사 돌알보네, 이 사람아.

늘참 찾았었지만, 무엇때에 한사코 안 닿은 소식. 소학교적 어릴 때부터 '동무' 가 아니었다. 늘 맘 한구석에 두고 연락을 시도하진 않았을 터.

당신, 좀 뒤따라 왔단 소문, 정신과를 뒤늦게 한단 소식, 그렇게 알려, 이런저런 기회에 소식을 대이려 했지. 다시, 그제, 소학교까지 같이 안했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란 생각.

단편적인 근래 소식으로, 당신 건강 고생을(심각한 Kidney Ailment) 겪었대고, 또, 누가 먼저였는지, 이년 세월을 Feeding Tube로 연명했다던 아내, 그 병수발을 했다고 들었네.

말년에, 신부님 주선으로 새 인생 찾아, 함께 골프도 즐기며 일만지를 같이했노란 소식도 늦게나마 알았고.

연락 대신 라스베가스 택수께 골프 한번 놀러 오겠다던 얘기도, 실천은 못해보고 돌알 갔구먼.

내, 소학교적 생각에, 넌, 어느 반엔가, 좀 푸수수 흠뻑지 뵈인, 그악친 않으나 장난끼 서린 애였고, 서울중학생 되어 부산서 환도를 해보니, 아, 너도 거기에 있었더라란 얘가지.

다시, 난, 그 유별나게 잘들고 나고 억센 애들, 그 틈에서 주눅으로 조용하던 편, 넌, 금방 무슨 땀 빼고 들어선 늙 같이 늘 상기된 얼굴, 네 특유의 크기도 했던, 무슨 의구에 찬 듯한 눈망울에, 수다를 부릴 것도 같으나, "Dubious but Caring" 한.

난 운동장 짓거리에 쭈뼛대는 쪽이었으나, 넌 축구든가, 뭐 그런 걸로 나던 쪽, "조용한 Dash" 그런 애가 아니었느냐.

대학을 입학해보니, 그 신나던, 누군들 아니라 생애 제일로 신나던 봄, 그 봄에 당신도 또 게 있더라란 얘기잖는가.

그게 꼭, 잊그제만 같은데, 하나 둘씩 떠나는구먼.

설치진 않았다 하나, 활달하게 돌아갈 만들고 게 끼어, 제각끔 이지만 젊

은 한때를 우리 같이 불살랐질 않느냐.

그게 잊그젠데, 우리들 이제, 어느새, 하나씩 둘씩, 마감을 하고 있구먼.

흥조라기 보단, 늘 불과한 얼굴에 부리부리 큰 눈, 게다가, 요즘 세상 몇부린 눈보다도 더 깊고 근사하던 특유의 쌍꺼풀, 환한 웃음, ..., 참보견 알고 지내온 사이건, 그 환하고 싱싱한 얼굴 그 눈망울 그 눈빛은, 의구에 찬, 그러면서 선하고 착하게 다가서는, 또 한 번 말하거니와, "Dubious but Caring", 그런 눈길이었다구, 당신이.

길고 많은 세월 지내다보면, 누구고, 얼마나 가깝던 사람도, 무슨 괴물이 되어 있을지를 모른다고는 하나, 이 양반아, 당신은 서글서글한 큰 눈망을 그대로 세월 지낸 환한 웃음인 채, 혹여 힘겨운 속 힘든 심심은 아니었는가 하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네.

너무 촉박한 부음소식 그런 걸로, 달려가 볼 생각도 못했고.

이젠, 온 시름 온 고뇌 다 내려놓고 떠나, 알맞고 마땅한 자리, 당신 묻힌 곳 아직 그 흙 별칭고 녹녹한 채인 지금, 편편이, 어릴적, 젊을적, 공부하던 짝, 젊음 불태우던 짝, 그런 옛 생각들을 해보네.

우리는, 우리 사고와 우리 관습은, 망자께/그 앞애, 그 추모함에, 그토록 엄숙/침통-침울스런 그러한 관습 그런 내력이나, 왜 여길 사고와 관습처럼, 만년의 '죽음' 을 그다 심각하게, 자연스런 '여정' 으로 못 받아들리는가, 우리는.

사별을 애통해 함은, 어느 인지상정보다도 그 이상인 것이나, 저들, 왜, '천국' 을 가잖는가.

다하고 끝나는 명 / 등지고 떠나는 영계, 명복 기구를 함으로, 천국 다가가는 길 노래로 큰 합창도 불러주고 하잖는가.

그래, 혹여, 당신 잘 가셨는가가 맞는가, 잘 가시게가 옳은가.

하지만, 승표 이 양반아, 그래도 이젠 좀 이르질 않은가.

우리들 인생 편듯길에, 무건 집 내리고, 그리고, 그래 당신, "당신 천국" 엘 당도 하셨는가.

그래, 그럼, 게서 편히 쉬시게나, 게서 영락을 누리시게, 이 양반아.

2013년 7월 7일  
어릴적 동무, 평생 학우 이흥민

## 서관우(68)동문 별세

서관우 동문이 2013년 6월 7시 오전 11시 버지니아 자택에서 부인과 아드님 Justin, 따님 Michelle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모든 가족 곁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근 50년 이상을 친구로서, 그의 이웃으로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철십 평생을 정직하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게 깨끗하게 살아온 좋은 친구,서관우 동문이 이렇게 먼저 떠나갔음을 한없이 슬퍼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아는지 초여름 비바람도 이날 온 천지를 축축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관우 동문은 미시간 대학에서 진단과 치료 모든 분야에 걸쳐 Radiology Residency를 마치고 샌디아고에서 펠로우쉽을 더 끝내고 Toledo, Ohio에서 명의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7년전 은퇴하여 자녀들이 있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그의 침대 옆에는 의문부성이 라고 질문하면서 되풀이 워던 성경책과 전통적인 불교서적이 놓여있었습니다. 평소애 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은 오히

려 동양철학에, 노자와 장자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예식은 금하고 간소하게 소수 직계가족만이 참석하라는 그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를 기리는 많은 동기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 슬픈 소식을 여러 서울의대 동문들께 조용히 전하여 드립니다.

워싱턴 DC, 매릴랜드, 버지니아 68년동기 일동(글, 서운석, 서진석)

### 편집위원회 회의초록

이번 편집 정기모임도 6월 19일 수요일 저녁에 뉴욕 후러싱에서 있었다. 원고 교정을 마치고 중요한 안전인 시계탑 출간 4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토의 했다.

내년 2014년 7월이 40주년 된다. 행사 내용은 시계탑 문집을 특집으로 출판 할 것과 전체 동창회 모임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다.

미주동창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문집 출간은 되도록 비용을 자체 충당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그 차액만을 동창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으며, 다음 이사회에 건의하여 허락을 요청하기로 했다. - 김병석 출판 위원장

## 시계탑 문집 원고모집 안내

1994년부터 매 5년마다 발간해온 시계탑 문집을 창간 40주년을 맞는 2014년 7월에 제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5집은 2010년부터 내년 7월까지 시계탑에 게재된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모아 지난 5년간의 추억을 엮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표지에 쓰일 작품도 응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사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 아래한글, Worl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 Group #3971486 -7 Night Alaska Sawyer Glacier Cruise Registration By Celebrity - Solstice

May 16(Friday), 2014 ~ May 23 (Friday) - 7 Night 8 Days

Dead Line of Registration: September 10, 2013

\* 유효한 여권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Group Name	31st SNUCMAA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Class Year	Gender :		
Name (1)			
Address			
E-mail			
Telephone	(H)	(Cell)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National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동반자**

Name (2)	Gender: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Nationally:		
	Date of Issue		
	Date of Expiry:		

\* Credit Card Number: \_\_\_\_\_

\* Expiration Date: \_\_\_\_\_ \* CID (3/4 digit code on Card) : \_\_\_\_\_

\* Card Holder Name: \_\_\_\_\_

\* Billing Address: \_\_\_\_\_

\* Travel Protection Plan : \_\_\_\_\_ Yes (or) No

**선실 금액(1인):**

09 - Inside Stateroom	\$97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179.26
08 - Ocean View	\$1,09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299.26
2C - Balcony	\$1,25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459.26
2B - Balcony	\$1,32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529.26

\* Gap Points: 저희 그룹은 6 Points로 각 선실 당 \$75 USD Onboard Credit 을 드립니다.

\* 우선순위 선실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예약을 빨리 하실수록 원하시는 선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Deposit (예약금): 1인당 \$250.00 - 2인 \$500.00을 카드로 결제 혹은 Check 를 보내 주십시오.

\* Direct Deposit(구좌번호 입금) 으로 결제 가능 합니다.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Final Payment (잔액): 항해 90일전 2014년 2월 15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같은 Credit Card로 자동 결제 혹은 Check를 02/15/2014 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Deposit(예약금)은 Non-Refundable이고 항해 90일전 02/15/2014부터는 Final Payment(잔액) 또한 Payment in full, Non-Refundable 입니다.

\* 여행보험 Basic Plan(Inside \$59/PP, Ocean View & Balcony \$89/PP): Basic 이외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Special Request: \_\_\_\_\_

\* 동창회 주관 참가비 1인당 \$100: 하선 당일 항구에서 공항까지의 Group 교통편, 사진 CD & DVD 제작 및 우송비, 행사내 여흥비 등으로 쓰이게 되고 동창회로 입금 적립 됩니다.

\* CSM 참가비 \$300: 서울의대 동창에 한함, (동창회로 입금 적립.)

\* Group Dining: 6:00PM (매일 저녁 그룹으로 모여서 지정된 테이블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Captain's Club Member ID (if you have one): 1 \_\_\_\_\_ 2 \_\_\_\_\_

\* Gateway (Home City Airport): \_\_\_\_\_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 납부 하심으로 상기 여행 조건을 수락하시고 단체 여행을 시행 하시기로 합의 하신 것입니다.

Applicant's Signature: \_\_\_\_\_ Date: \_\_\_\_\_

Emergency Contact Person: \_\_\_\_\_ Relationship: \_\_\_\_\_

Tel: \_\_\_\_\_ Cell: \_\_\_\_\_

Email Address: \_\_\_\_\_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nCoast Travel Travel Cruise Convention.com**

Travel Agent: Jenny Chun, KHM Travel Group Inc.

Search Website: www.TravelCruiseConvention.com

E-mail: Jenny@TravelCruiseConvention.com

P/e-mail: Jchun7@gmail.com

Tel: 813-667-1008, Cell: 215-260-5041, Fax: 207-537-3145



## 제17회(2013년도) 함춘 학술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 공고

**1. 수상인원 및 연구비**

수상인원: 연구업적 3명 범위내

연구비: 함춘동아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1명)

연구비: 함춘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2명 이내)

(인원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 상: 본회 "함춘 송년의 밤" 행사 석상 (2013년 12월 17일(화) 개최예정)

**2.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대상**

①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정회원으로서 미국의학교육기관, 의학연구기관, 보건의료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② 최근 5년이내 발간 저서 또는 2년이내에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중복수상은 제외)

**3. 수상후보자의 추천**

A. 미주내 신청자는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에서 예비심사 후, 미주동창회장이 추천으로 본국 동창회에 등록한다.

B. 미주동창회원으로 2년 이상 미주동창회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C. 자청과 타청을 모두 환영한다.

D. 신청서(자청서)와 추천서가 재미 동창회 사무실에 상비 되어 있으므로 연락 바람.

E. 신청/추천 마감: 2013년 9월 15일

Sechin Cho, M.D.,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MAA-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lma@yahoo.com, (516) 365-5500, (516) 365-5501(fax)



### 스트레스는 기회이다 Stress Can Help You

오태희(64, 커네티컷)



Stress는 정신적 압박감을 통털어 의미하는 의학용어이다. 사람의 육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불면증에 머리가 아프고, 소화기 안 되며,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뒤 틀린다. 술과 담배,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스트레스를 높이지 않는 증세나 질환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심걱정의 대상이다. 스트레스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일생을 뒤 바꿀 수 있는 엄청난게 큰 일이 기도 하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흥미와 자극을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일종의 성취감도 느끼게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에 이상을 경험하고 직업이나 돈, 가족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어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트레스에 저항력이 강하고 따라서 더 건강하다. 연구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Stress-Hardy라고 부른다.

- (1) 자신과 직업, 가족, 돈의 가치를 믿는다.
  - (2) 인생에 대한 감각이 정확하다.
  - (3) 일반적으로, 변화는 도전이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4) 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이다.
- 이상 네 가지 유형의 personality (성품)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무엇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생의 도전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간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데, 미국 성인의 43%가 해마다 스

트레스를 치료받고 있으며 75%에서 90%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의사를 찾는다고 한다. OSHA(직업안전 보건국)는 연간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300 billion나 되고 일반 성인의 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발표하였다. 어디를 가도 병원이 있는 곳에는 스트레스 센터가 자리 잡고 연구와 치료에 한창이지만 만족한 결과는 아직 없는 듯하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현대의학의 골칫거리가 되어 난치병처럼 등장한지 몇 개 성상이 지나갔다.

이번 YALE alumni magazine (May-June) 에는 스트레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연구논문을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서 요약하여 동창회지의 Findings 난에 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대상자로 은행원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스트레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positive video와 도움이 되지 않는 negative video를 제작하여 첫째와 둘째 그룹에 보여 주고 셋째는 video 없이 교육시킨 결과, 첫째 그룹인 100명은 현저한 직업적 능률상승을 보여주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를 피해 달아나기보다 앞에 나서서 해결하도록 준비하는 적극성도 보여준다.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결국 도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Yale 총장으로 새로 부임하는 Peter Salovey (86 Ph.D)와 Alia Crum(12 Ph.D) 예일 동창 팀이 NIH Grant를 신청하여 공동 연구하였다. 여기서 얻은 경험과 data로 <Re-Think Stress> educational program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스트레스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는 없었다.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한 번 사라졌던 스트레스가 재발하면 다음에는 같은 치료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발표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엄마, 그 영원한 버스

서 량(69, 대뉴욕)

1999년부터 2007년에 걸쳐 장장 8년 동안 미국을 흥분시킨 케이블 티브이 주말 드라마 'The Sopranos (소프라노 가족)'의 주인공 'James Gandolfini'가 2013년 6월 19일 로마에서 휴가 중 51세의 가까운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제임스 갠돌피니'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 드라마에서 뉴저지 마피아의 우두머리, 'Tony Soprano' 역으로 인기가 대단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가장에다가 스스로를 'waste management consultant (폐기물관리 상담사)'라 칭하면서 마피아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이중생활을 한다.

1875년에 생겨난 말 'mafia'의 어원은 이태리 말로 용감하고 대담하다는 뜻이지만 원래는 고대 불어의 'mafler (식탐하다, 게걸스럽게 먹다)'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다. 사실 극중 마피아 단원들 여럿이 모여 푸짐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한국 멜로드라마 밥상머리를 뽐낼 정도로 무수하게 나온다. 용기도 사랑도 뱃속이 든든해야 생기는 모양이다.

그는 또 '공황장애 (panic disorder)'라는 정신질환 증세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신과의사를 본다. 심리상담이 세밀하게 묘사되는 장면이 내 직업의식을 많이 자극했던 것도 사실이다.

가치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토니 소프라노는 천둥벼락속이 마피아 단원들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의 어머니와, 철딱서니 없는 여동생과, 자살소동을 일으키는 아들과, 엄마와 죽자고 싸우는 딸년, 잘 나가는 조카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 총질을 한 삼촌,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알고 이혼을 청구하는 아내 때문에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운 좋은 남자란 가지가 많지 않은 나무

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을 사는 남자다.

토니는 이런 사연들을 정신과 여의사에게 털어 놓다가 은연중 그녀를 유혹하는 수작도 부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담 도중에 이런 말을 한다.

"This is gonna sound stupid, but I saw at one point that our mothers are... bus drivers. No, they are the bus. See, they're the vehicle that gets us here. They drop us off and go on their way. They continue on their journey. And the problem is that we keep trying to get back on the bus, instead of just letting it go."

"(이거 바보 같은 말로 들릴 겁니다, 근데 나는 한때 우리 어머니들을... 버스 운전사로 봤어요. 아냐, 그들은 버스 그 자체예요. 보세요, 그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차량입니다.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자신들의 길을 간답니다. 그들만의 여행을 계속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버스를 바로 보내주지 않고 그 버스를 자꾸 다시 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The Sopranos'의 제작자 'David Chase'는 갠돌피니에 대하여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그의 천재성은 서글픈 눈매에 있다" 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를 이렇게 애도한다. "모든 건 자네 눈 속에 있었어. 그 소년다움 때문에 자네는 위대한 배우가 됐던 거야. 그건 바로 어린아이의 반응 같은 것. 단순한 감정, 직선적이고 순수한 마음이었어."

그의 눈은 통명스러운 엄마에게서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소년의 비애를 연상케 하면서도 연약한 여자와 티격태격 다투느니 차라리 사내들끼리 품싸움을 하는 경쟁의식으로 이끌거린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이 내는 소리 중 제일 높은 영역의 소프라노 음성, 당신과 나의 잠재의식 깊숙이 숨겨진 젊은 엄마 목소리를 향하여 험날처럼 뻗어 얹히는 우리의 갈등과 그리움이 있다. 거대한 버스, 그 영원한 모성의 존속을 위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 뉴욕중앙일보 2013년 7월 3일 서 량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 농담 골목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 예상하고 결혼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결혼하지만 그녀는 변합니다. (변)

"자네의 강연에 대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한다면 강연이 끝나거든 부디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이것은 연사로서의 예절이야. 그리고 나서 물러날 때는 발끝으로 살살 걸어 나오란 말이야."

"왜 발끝으로 걸어야 하나?"  
"잠자는 청중을 깨우지 않도록 하려니까." (이덕승)

교회목사님 설교에 (늬을수록 적극적)으로 살아야한다는 설교에 할머니들이 우

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 좀 계속 (노인 짚썩지)이야기만 계속하는지!!! 귀 어두운 곱게 늙은 할머니 "갈치가 천원" 하는 소리를 (갈이가 처녀)로 듣고 오해. (정정수)

진정한 신사는 사위하다가 변소에 가서 No. 1을 보고 돌아와서 샤워를 끝내는 남자이다. (행)

아내란 청년에겐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인에겐 간호사입니다. (김세-)

어떤 씨름 선수는 쇠고기를 많이 먹고 힘이 세어졌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 수영을 못할까? (철)

## 2013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서는 2013년도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 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성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7명 이하 (장학금 각 \$2,000 내지 \$5,000)

**구비서류:** ● 신청서 (www.snucmaa.us Website에서 download)  
● 성적증명서(original transcript), 자필소개서(essay), 추천서(original) 2통  
구비서류에 결격이 없고, 신청마감일 이전에 email과 우편으로 완성된 서류(completed package) 접수된 응모자에 한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응모기간:** 2013년 9월 13일 까지

**발표 및 수여:** 개별 우편 통보 (미동부 시상식 2013년 11월 2일, 미서부 시상식: 추후발표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SNUCMAA of North America (전화문의 사절)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scholarship@yahoo.com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서 인 석



紙上法醫

골프

노용면(55, 대뉴욕)



47세인 머피씨 (Mr. Murphy)는 유명한 금융식탁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업무는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 자기 회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튼튼하며 성공적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머피씨는 손님 두 사람을 이튿날 골프장으로 초대했다. 몹시 비대한 (280lb.) 머피씨는 화씨 90도의 대기 온도를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듯 했고,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그가 벌써 좀 피곤해 하는 태도였다.

니 두 사람이 자기 없이 게임을 계속해 달라고 했다. 그가 비정거리면서 카트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고, 그런 후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손님들이 프로샵에 가 보니, 그가 몹시 괴로워하길래, 그의 처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했다.

그의 처가 그를 자기네 가족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조그마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검사 결과 대뇌 오른쪽에 조그마한 출혈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혈압이 높았었다. 그의 가족들 중에 고혈압과 뇌출혈 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있었다. 이를 후 그의 말소리가 아주 약해지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는 큰 병원으로 옮겨 갔다. 그곳에서 폐의 CT scan을 하니 폐동맥 여러 군데서 응고된 혈액 즉 혈전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생긴 폐조직 손상 즉 경색도 여기저기에 있었다. 꽤 심한 변화였다. 이러한 경우에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 (anticoagulant)를 써야 했지만, 그에게 이런 약을 쓰면 뇌출혈이 더 심해질 것이 염려가 되어, 폐질환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치료하기로 했다. 그는 폐동맥 혈전색증 (pulmonary thromboembolism)의 진단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그리고 골프를 친 지 나흘 만에 사망하였다. 병원 간호사에 의하면 그가 병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있다가 쓰러졌다고 했다.

그의 죽음이 그가 손님들과 골프를 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내게 청탁이 왔다. 병원에서 실시한 부검 기록을 보니 심한 폐동맥 전색증과 폐조직 경색증이 기록되어 있었다. 큰 혈전이 약측 폐동맥 교차점에 걸려 있었고 (saddle embolus) 그것이 폐동맥 분지들의 여러 군데에 뻗치고 있었다. 현미경 검사 소견에 의하면, 이들 혈전들이 생긴 지 한참된 듯 했다. 혈전 속에 기질화와 심지어는 섬유화의 소견까지 있었다. 동맥 전색이 시작하지 나흘이 훨씬 더 되었음이 확실했다.

부검을 한 병리의사가 그의 사인을 cardiac arrest due to pulmonary thromboembolism 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심장은 매우 컸고 정상 무게의 두 배 정도인 750 gm 였다. 특히 좌측 심실이 매우 비대해 있었다. 이러한 소견은 고혈압성 심혈관병 환자들에서 자주 본다. 또한 뇌출혈도 고혈압 환자들에서 흔히 보는 합병증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 출혈이 극히 작아 사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듯 했다.

그가 사망하기 나흘 전에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 골프가 그에게는 일과나 다름이 없었다. 무더운 날에 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를 치면서 생긴 정신적 압력이 뇌출혈 발생에 조그마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골프가 긴장을 푸는 운동은 아니다. 특히 손님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하는 운동이면 그럴 것이다. 내가 법의관 생활을 할 때에 골프를 치다 심장이 급히 멎은 예들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서는 뇌출혈이 그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생겼다고 보았다. 뇌출혈이 생긴 후 제한된 동작을 하게 되면 하지의 혈액순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의 매우 비대한 체구도 하지의 혈류를 느리게 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머피씨가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가 화장실에서 있다가 쓰러졌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 후 나는 폐동맥 혈전색증이 그가 사망하기 나흘 이전 즉 골프를 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생겼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죽기 불과 이틀 전에 진단되었으니 이상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좀 늦었었다. 폐동맥 혈전색증이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 (60% 내지 80%)이 임상적으로 별 증세가 없다. 따라서 그들이 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이들 죽음이 흔히 법의관실에 보고되게 되는 것이다. 머피씨의 경우도 가령 그가 뇌출혈이 없고 병원에 입원 안했다면 원인불명의 급사로 되었을 수 있겠다.

나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머피씨는 심한 폐동맥 혈전색증으로 사망했다. 그의 폐질환은 골프를 치기 전부터 이미 꽤 진전되어 있었고 그것을 진단했을 때는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업무도중에 생긴 뇌출혈과 폐동맥 혈전색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가 없다.

Reference: Yong-Myun Rho: Industri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2239-2241, 1978.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원택 (71, 남가주)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은 여자 친구와 어떤 공연을 가기로 했으나 그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었다.

비싼 표를 그냥 씹힐 수도 없고 해서 친한 남자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좋다고 하기에 표 한 장을 주었다. 그런데 막상 극장에 갔더니 개막 5분 전에 옆자리에 들어와 앉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그것도 아주 젊고 멋진 여자였다.

내 남자친구가 남자들끼리 그런데 가는 게 멋졌던지 아니면 나를 배려해서였는지 한바탕 '깜짝 쇼' 를 벌인 것이다. 공연에 가기 전에 나는 내 여자 친구에게 남자친구와 같이 간다고 그랬다. 공연을 갔다 와서 그녀가 재미있었느냐고 물기에 무심코, 옆에 앉은 여자가 남자가수한테 "오빠!" 를 연발하는 통에 창피해서 혼났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구냐고 한다. 나는 모르는 여자라고 그랬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그 남자 친구도 같이 갔었냐고 또 묻는다. 그렇다고 그랬다. 그리고 "아빠!" 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내 왼편에 앉았느냐 오른 편에 앉았느냐, 모르는 여자가 소릴 지르는데 왜 자기가 창피했느냐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지만 거짓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이왕 옆질러진 물이라 그 다음부터는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친구도 같이 갔는데 나중에 공짜표를 얻은 게 있어서 판 자리에서 관람을 했고 그 친구가 데려온 여자가 내 자리가 더 좋은 좌석이라 내 옆에 앉게 되었다고 그랬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남자들한테는 이 정도면 대충 통하게 마련인데 여자들은 남자들 구린내 맡는 데는 귀신들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저리 가라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눈 끝이 올라간다는데 나도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여자와 내 남자친구의 관계는 어떤 사이냐고 물기에 잠은 모르지만 '그냥 아는 사이' 인 모양이라고 그랬다. 남자들은 '아무하고나' 같이 공연을 갈 수 있지만 여자들은 '보통 사이' 가 아니면 그런 데를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은' 그 친구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자 하나 붙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고 실토를 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때(못할 때가 아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문제는 그것이 나쁜 것보다도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야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일단 거짓말 한 것이 탄로되면 그 사람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마련이다. 그 다음부터 내 여자 친구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곧이듣지를 않고 '사실은'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먼저 부탁을 했을 것이 뻔 하다고 철썩같이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원죄(原罪)에 해당한다. 그리고 억울한 것은 내 사정이다.

거짓말 중에는 '그짓부리' 라고 하는 '그짓말' 도 있다. 만약에 내가 실은 남자친구와 같이 공연을 보았으나 내 여자 친구를 놀려주거나 내 주가를 올리느라고, 내 옆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요정 같은 아가씨가 와서 앉았노라고 허풍을

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내게 훌쩍 반해서 공연이 끝나고 카테일도 한잔씩 나누고 다음에는 같이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이다. 이는 마치 팔로로 메주를 쏜다는 말과 같아서 웬만한 여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실제로 있었던 일도 침소봉대해서 떠벌이면 모두가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허허실실의 병법이다.

이와 같은 '그짓말' 을 잘 하려면 언변이 좋아야 하며 연기도 잘 해야 한다. 한마디로 능청을 잘 떨어야 되는데 나로서는 불가항력이다. 나는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입이 씩룩 씩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알아차리고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라" 고 한다. 또한 나는 시치미를 떼는 데도 자질이 없어서 거짓말이 탄로났는데도 주절주절 읊어대기 때문에 '제 발이 저리다' 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친구들과 포커를 하면 번번이 돈을 잃는데 내패가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Bill Clinton을 보라. 그는 Webster 사전까지 인용해가면서 sex(성교)란 낱한 intercourse(삽입)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냥 가볍게 입술과 귀두가 접촉하는 것은 inappropriate(부적절)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adultery(간통)은 아니라고 '애교' 있게 빠져나갔다. 이를 '가짓말' 이라고 한다.

내가 암만 나는 그 여인과 말도 몇

우리 집



서윤석 (68, 버지니아)

방이 두 개쯤 달린 작은 집이면 되겠지요.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겨울이면 눈도 하얗게 내리는 앞뜰에는 늘 밝은 등불이 켜있고 명절이면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체통에는 배달부 아저씨가 기다리던 우편들을 넣고 가면 되겠지요. 가끔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늙어가는 우리 얼굴에 아프지 않은 열은 주름만 조금씩 늘어가는 집 시켜면 구름이 몰아쳐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지붕이 새지 않는 집이면 되겠지요. 돋보기를 쓴 아내를 도와 젖은 접시도 박박 닦아주고 아픈 어깨도 서로 만져주는 깨끗한 부엌이 있는 작은 집 이름 모를 파란 새들이 창문가에 와서 재잘거리고 저무는 해도 잠시 쉬어가는 뒤뜰, 송사리도 두꺼비도 사이좋게 사는 물방울 펄펄 터뜨리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집, 작은 우리 집이면 되겠지요.

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키스는 커녕 손목도 못 잡아 봤다고 항변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talent(재주)가 없는 것이다. 같은 말을 해도 나같이 순진하거나 어리벉벉하면 거짓말이 되고 Clinton 같이 영리하거나 세련되었으면 거짓말이 된다.

아! 나는 왜 이리 머리가 나쁘가, 왜 이리 재치가 없는가, 그리고 왜 이리 심장이 여린가. 나에게서는 그저 여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재주밖에 없다.



서울의대 동문 12명 부부 그리고 서울대동문 두 분 합쳐서 24명이 2013년 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소위 Patagonia 여행을 다녀왔다. 뉴욕의 아시아 여행사에서 제공한 이 여행은 3일의 이과수 폭포 여행을 포함, Patagonia 체제는 10박 11일의 짧은 여행이었으나 우연히도 서울의대 동문들의 여행이 되었고 Glacier walk와 하이킹을 포함한 trekking을 목표로 짜여졌다. 예전에도 Patagonia 여행기를 시계잡에서 읽었지만 이번 여행도 감명 깊은 느낌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83년 졸업 심인보, 백승원(79)동문부터 오용호(72), 71년 졸업 조병선, 정인용과 박진국, 70년 졸업 유종현, 최광택이 몸통이 되어 민발식(66), 민경탁(65), 황규정(65) 그리고 이흥표(64)동문까지 다양한 나이 분포의 동문가족이 전 미국에서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으로 도착과 귀가까지의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연 경치와 번득이는 동문들의 예지를 가슴깊이 새기며 끝낼 수 있는 여행이 되었다.

New worlds의 남단을 대부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을 칠레와 공유하며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남미의 국가지만 최근 인구가 겨우 1천5백만 명인 황량한 땅덩어리고, Patagonia는 역삼각형의 남단지방으로, 수도로 인구가 집중한 이 나라에서 다양한 지리적 형태로 구성, Andes, steppes (거의 대부분)와 coast로 나누어진다. 우리에게 Wool-sleeve 옷 상표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경치사진으로 알려진 Torres del Paine (=prairie)와 Cerro del Fitz Roy Peak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전에는 유럽인들이 주 이었는데 즐겼고 지금은 아시안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Evita Peron, Fitz Roy Peak 그리고 Guanacs (Llma와 Alpaca와 같은 종류의 동물)의 나라였고, 여행도중 옛날 버릇대로 이 세 가지의 그림엽서를 샀다.

처음 2박3일의 이과수 폭포 여행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드의 장관인 폭포에서 무수한 사진과 눈도장을 찍고 현지 브라질 한인 가이드로부터 희망찬 브라질의 경제와 사랑하는 여자 대통령의 이야기와,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축구 준비이야기를 덤으로 들었다. 알젠틴 사이드의 폭포에서 '악마의 목구멍'의 물안개 속에서 사진 찍은 게 축축하게 기억에 남고 (부드러운 물벼락) 이과수 강가의 삼 개국 경계에서 약 30년 전 한국인들이 죽어 가면서 파라과이로 불법 이민한 옛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산 역사였다.

부노에스아이레스 공항에서 합류한 24명 전원은 피곤한데도 이를 전에 오셔서 시티 투어를 하신 이흥표(64) 선배님이 보여주시는 스마트폰 사진으로 stylish 자체인 tango dancers를 보면서 즐겁게 서로를 소개했다. 매년 2, 3월 목요일 오후에는 La Boca(황국의 빈민촌으로 다양한 원색, 양철지붕의 달동네)에서 free street performance를 관광객에게 선사한다.

비행기로 두 시간 만에 도착한 Ushaia는 지구 최남단의 도시, 남극 탐험과 여행의 출발항구로, 이제는 Punta, Arenas(칠레)를 제치고 인구 5만으로 급성장한 도시로, 3일간의 첫 여행지가 되었는데 배로 Beagle Channer를 벗어나 대서양으로 나가면 남극의 Argentine Penionsula로 가는데 그리 멀지 않다고 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의 호텔에서 자고 도착 다음날 두 시간 이내 운전으로 갈 수 있는 Vinciguerra, 빙하가 있는 산으로 왕복 5마일이 넘는, 빌려준 crampon을 신고 잠시 걸기도 하는 trekking을 했다. Black Tundra swamp 위로 신발을 다 적시며 시작해, 가파른 trail을 조심해서 올라가며 드디어 작은 호수 뒤에

있는 빙하를 약 20분 정도 걷는 경험은 처음이고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대부분의 동문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완주했으며 운동 후 맛있는 점심을 즐기고 다리가 좀 후들거렸으나 안전하게 돌아왔다. Perito Moreno glacier를 걷는 계획이 무산되어 마지막 빙하 산책이 되었지만 찍은 사진에 보이는 동문들이 패션모델들처럼 보였다.



다음날은 함께 철도여행으로 Ushaia 서쪽, 칠레 쪽으로 가면서 Tierra del Fuego 국립공원을 즐겼다. 저온과 acidic water 때문에 땅은 peat(검은 이끼와 죽은 식물이 땅 표면 밑에 층을 형성) Bog(=wetsponge)가 형성되고, 같은 이유로 쓰러진 죽은 나무가 전 공원에 널려져 있었으며 적자생존으로 lenga, guindo라는 소나무 종류 한 가지만 숲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지역이었다.

Land(or earth) of Fire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남미 대륙남단과 Isla Grande(남미에서 가장 큰 섬)사이의 수로를 (소위 Magellan chanel을) 1520년 마젤란이 38일만에 걸쳐 처음 배로 통과하며 야간에 육지에서 움직이는 인디안(Yalgan 등)들의 횃불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1830년경에는 영국이 선장 Fitz Roy를 앞세우고 Charles Darwin과 함께 Isla Grande의 남쪽 Beagle Channer로 통과한 전 지역이, 열도 지역인 셈이다. 농사는 불가능해 양을 기르며 영국인 선교사가 인디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고 그의 이름을 딴 Bridge Isle이 Beagle Channer에 남아 있다. 이곳 인디언들은 이 추운지역에서도 거의 벗고 살았는데 백인이 준 담요를 덮고 살다가 다 전멸했다는 이야기다.

공원 끝에는 pier가 있고 한 판잣집으로 된 지구 최남단의 우체국에서 죽기 전 32세의 예비타의 사진엽서를 한 장 샀다(간담으로 죽었음).

오후에 즐긴 Beagle Channer cruise와 쇼팽은 재미있게도 펭귄에 모두 집착하게 되었다. 섬마다 무수한 새와 바다표범-코끼리를 가까이 가서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펭귄과 유사한 cormand라는 날아다니는 새가 100마리라면 한 마리의 펭귄이 섞여있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세 가지 중 한 종류인 Jackass Penguin이 있는데 이들은 날지 못하고 목과 몸뚱이가 짧고 뚱뚱한 편이라 사진을 확대해도 찾아내는 게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몇 동문은 토이 펭귄을 사고 나는 소위 national stone으로 만든 아주 작은 펭귄 조각 한 쌍을 80불이나 주고 샀다.

그 다음날은 국내비행기를 타고 El Calafate로 가서 나머지 여행을 쉴 새 없이 시작했다. 이 아담하고 작은 도시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아르헨티나 호수 옆에 있는 관광의 중심도시이자 현 대통령 남편의 고향이란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여를 steppes 거쳐 Perito Moreno glacier 서쪽을 가는 여행은 사막을 지나는 기분이었다. Calafate는 작은 관목 이름인데 노란 작은 꽃이 아름다워서 Macro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이곳 아르헨티나의 소 방목은 그 유명한 Argentine Beef의 수출원인데 소유자들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비행기로 추적

대강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을 정도란다. 이곳의 명요리 'Asado' 쇠고기 구이는 지방이 적고 고기가 질겨서 지방의 고소한 맛이 없는 질긴 맛을 즐기 않은 여행자를 빼고는 맛을 즐기기가 힘들다고 한다.

Moreno 빙하의 서쪽 방문은 이번 여행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세계에서 제일 큰 빙하 (길이 5km 높이

60m) 중의 하나로 아직도 커지는 빙하이다. 작은 크루즈 배로 가까이 접근 빙하가 부서지는 것을 감상하고, 심지어는 물밑의 빙하가 부서져 부상하는 것까지, 그리고 glacier arch를 보았다. 빙하가 자라면서 육지에 닿은 곳에서 수면의 차이로 난 구멍이 커지는데 약 2년이 걸리며 붕괴되고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400km의 Southern Andean Ice Zone은 태평양 쪽에서 오는 덥고 습한 바다 공기가 대서양쪽으로 오며 일년내내 눈과 비가 내려 이 빙하는 축복받은 기상조건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계속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날에도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Lake cruise로 빙하 또 빙하, 아름다운 색깔의 깨진 빙하 덩어리들을 배위, 배 앞뒤에서 사진 찍으며 모든 종류의 빙하들을 (Upsula, Bahia O'neil, spegazzini 등을 통해서) 감상하며 다시 Moreno 빙하 동쪽을 보고 끝냈는데 나름대로 이곳이야말로 "Capital of Glaciers in the world"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여행 중 특히 저녁식사는 다 서구식으로 입맛에 맞았고 멘도사 산 와인(아르헨티나 국산, 13% 알콜)을 매일 마실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은 El Calafate에서 만나 절 특수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steppes를 지나고 칠레 국경 너머 우뚝 나타나는 국립공원 Torres del Paine로, 목적지는 Torres(=towers or castles)와 cuernos(=horns) del Paine 이다. Granite Peaks인 Several Cerros(=hills)중 제일 높은 것은 3,248m의 Cerro Paine 이고 바람 속에 눈과 빙하 그리고 구름을 더한 갈색의 탑들처럼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포장 안 된 도로를 큰 타이어를 장착한 버스가 steppes(=prairie)를 달리는데 양과 소들을 방목하는 목장들과 길을 가로 지르는 여우, 사슴, 새들의 풍경, 장거리 여행하는 몇 명의 biker들 이외에 아르헨티나 카우보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공원 안에는 무수한 lakes(전부가 milky except only one blue color)와 유명한 W-trail이 있는데, cuernos의 전경, cerros를 후경으로 보기 위하여 하이웨이로 이동하며 근접하며 1시간 45분 걸리는 trail hiking으로 강풍과 절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여행자들이 잘못 인식하기 쉬운 cuernes(=horns)는 남쪽에 위치하며, 검은 초콜릿 칼라의 세 개의 cap들이 손가락을 편 것처럼 보이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초콜릿-캐러멜 지층이 반복된다. 식지 않은 volcanic stone 층이 교차로 오래된 화강암 층위에 위치하며 나타난 단층 산으로 백만 년의 젊은 지질학적인 변화가 태평양과 대륙지층이 구겨지며 산맥을 형성할 때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이 공원 안에는 guanacos가 야생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털이 짧고 잘 빠지지 않아 털가죽으로 사용하려고 사육하려고 한다. Andean eagle들이 높은 청명한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El Calafate로 돌아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바로 다음날의 여행은 그렇지 않았다.

네 번째 날은 El Chalten(소위 hiking capital of Argentina)로 일찍 일어나 버스 여행을 하며 버스 안에서 백승원 동문의 뛰어난 사회로, 최광택 동문의 대한독립선언문, 토끼전 암송과 광해군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에 내리는 비 걱정을 잊어가며 많은 무지개와 쌍무지개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여 작은 도시의 호텔에 도착하자 장대비가 내려서 일부만 비옷을 입고 5마일 정도의 Fitz Roy trail hiking을 떠났고 나머지는 호텔 투숙객이 되었다. Lake Capri (2마일)에서 다시 6명만 남아서 trail을 완주할 수 있었다.

Fitz Roy Peak(3405m)는 이 trail에서 올려보면 약 4천 피트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거대한 granite rock 더미인데 일 년 내내 비 눈 구름으로 봉우리를 보기가 염분을 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비가 적어지며 빙하와 그 밑의 작고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Rio blanca(=white river)를 따라 감상하며 거의 달리는 속도로 걸었다. 처음엔 봉우리의 아래 작은 부분에서 구름이 걸치면서 전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정말 짧아서 무수한 셔터를 눌렀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오는 소형버스 뒤에서 떠나고 있었다. 호텔에 돌아오니 타운에서도 짧게 봉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와인과 저녁을 타운의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는 양고기 요리를 택했다. 내 dentist가 여행전 추천했는데 여러 번 먹은 소감은 "역시 양고기 요리를 잘하는 나라이다" 이었다. 핫김에 잘 보이는 Fitz Roy peak의 포스터 한 장을 9달러를 주고 사서 여행 후 집에다 붙여놓고 지금도 보고 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었던 빙속에서의 하이킹을 아쉬워하며 또 오용호, 유종현 동문의 독심에 감탄하며 단잠을 청했다.

El Calafate로 돌아와 마지막 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아니 미국까지의 긴 마지막 여행을 위해 쉬면서 보냈는데 그중 첫날은 특별버스로 무척 가파른 바위 산 Plateau로 올라가서 Lake Argentines를 굽어보며 거친 바람을 만끽, 이곳의 지리공부를 했는데, Mexican Hat이라 불리는 이상한 바위들을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그런데 하산중 점심은 아의 텐트안에서 즉석 구이 아사도를 즐기도록 되었던 계획이 무산되어 셀러드만 먹고 동시에 백승원 동문부부의 가수 사이의 말춤을 전장 생방송 쇼로 보게 되어 가이드들과 함께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도시로 내려와 각자 돈을 내고 어렵게 아사도를 먹었는데 역시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우리의 입맛은 달랐다.

그날 오후 쇼핑(2-3일 매일해서 도시들이 되었음)을 마치고 소수가 타운을 직접 방문한 여자대통령(그들은 인기가 없는 여자 정치인 - 호텔 사업가를 christy라고 부름)을 Town center의 공연장에서 보았다고 한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흥표 동문의 Southern Hemisphere Astrology 강의를 들었는데 남십자성을 찾으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다.

마지막 날은 국내비행기로 부노에스아이레스로, 시내를 경유해서 국제공항으로 각자가 다른 시간에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부노에스아이레스는 진흙탕 물의 Rio del Plata가에 있는 도시(대서양가가 아님)로 1536년 Pedro de Mendoza의 정착, 1816년 스페인 <다음면에 계속>





# 고향의 서양배 나무

이 기 황(63, 펜실바니아)

나의 고향은 용동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주 오산에서 서쪽으로 반오리 되는 긴 동독을 달리면 바로 우리 집 뒷담이 있는 고개에 올라서면서 숨이 턱에 닿게 됩니다.

우리 집은 큰 기와집이었고 대가족이어서 바로 옆의 증조할아버지 집까지 하면 용동이라는 동네는 마치 우리 집을 위하여 있는 듯싶었습니다. 나는 오산소학교 2학년을 다니다 말았을 뿐이지만, 오산에서 인물이 많이 났다든가 또는 오산은 남강 정신의 고장이라 하는 말을 듣게 될 때면 공연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동에서 살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잡한 도시 뉴욕에 살 때도 물론이고, 펜실베니아 주의 Sinking Spring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골 풍경을 마음껏 보며 살고 있는 요즈음도 오히려 고향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필경 시골 풍경이 더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고, 노년의 삶이 고향을 더 그리워하게 하는가 봅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들며 자연을 숨 쉬던 그 시절은 참으로 고요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일들이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던져놓고 뉘싯대를 메고 달려 나갑니다. 고향에는 늪이 많았고 붕어, 가물치, 뱀장어가 잘 잡혔습니다.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금빛 나는 큰 붕어를 낚아 올릴 때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나는 큰 붕어를 잘 잡기로 이름났었으니까요. 큰 비가 오고 난 후면 채와 양재기를 들고 냇가로 달려갑니다. 잔 고기들이 맑은 시냇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채로 후려서 건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풋고추에 고추장을 넣고 조리주셨던 그 맛을 그 후로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고 벼가 익을 무렵이면 논에서는 게들이 물고를 따라 내려옵니다. 비가 쏟아진 날

밤에 물을 대기 위하여 독을 터놓은 곳에 그물을 쳐놓고 옆에 초막을 치고 호롱불을 켜고 밤을 새웁니다. 밤새 내려오는 게를 잡아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엔 몇 초롱 가득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담은 게장은 지금 생각만 해도 밥맛이 저절로 납니다. 밤이 익고 콩이 여물 때면 나는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쏘다닙니다. 밤송이를 가지채로 꺾어서 불을 지르고 발로 비벼서 까먹는 재미, 콩을 뿌리채로 뽑아 태우고 까먹는 콩총대, 숯과 검정으로 새까맣게 된 손과 얼굴, 그 때는 그저 그러면서 놀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재미있게 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그루의 서양배 나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래 형편없는 과수원을 사 가지고 몸소 밭을 벗고 나서서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며 과수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평안도에서 가장 우수한 과수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버지의 신용은 널리 인정받아서 우리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일은 검열 받지 않고도 우량품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신종 과수를 들여오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험 삼아 심어 놓으신 한 그루의 서양배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서양배 나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과일은 보는 것으로 배불러서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어쩌다 한 개 먹으려고 해도 상한 것을 모아놓은 광주리에서 골라야 했으니까 한 그루 밖에 없는 서양배 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하신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르고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엄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모르고 사신 분이라고 하여도 거짓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처음엔 그 서양배 나무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서양배는 보기에 생기도 신동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서양배를 한 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과일을 저장한 움(인덕을 옆으로 파고 들어가 굴처럼 만들고 그 안을 안전하게 꾸리고 과일을 저장하는 천연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나더러 먹으라고 과일 한 개를 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서양배였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그 맛은 희한했습니다. 즙이 많고 달고 시원한데다 무슨 양념까지 친 것 같은 낯다른 맛이었습니다. 그 맛이 내 입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날마다 서양배 생각으로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심심하면 서양배 나무를 맘똥개 되었고 비바람이라도 불어치는 날이면 툭툭! 바다에 떨어져 있을 한 알을 그리며 달려가곤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칭얼댄 생각은 나는데 그 서양배를 하나 더 먹어야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 성격 탓도 있었으나 아버지의 명령은 그것도 금하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양배 나무는 절망으로 쳐놓은 담 가까이, 그리고 조금 떨어져 한산한 시골길이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면 혹시 저 사람들이 들어와 그 귀한 배를 따가지나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주인 의 아들도 못 먹고 애태우는 것을 남에게 도둑맞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도 켕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마음엔 아버지의 명령은 명령이고, 그 서양배를 따 먹고 싶은 충동이 별떡벌떡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도둑의 심보를 가진 놈은 바로 과수원 안에 있었던 썸입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서양배 나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콜롬비아 대학에 공동저술차 오셨을 때 일입니다. 형님이 봄살이 나서 아내가 끓여준 콩나물국을 가지고 약과 청진기를 들고 갔습니다.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을 보면서 과수원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서양배에 얽힌 많은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이 나를 크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서양배야 나무에서 따 먹으면 무슨 맛이 있나. 따서 움에 두었다가 먹어야 제 맛이 나지." 나무에서 따 때의 서양배는 들배와 같으나 그것을 움에 저장해서 잘 무르게 되면 그때야 제 맛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내가 만일 그것을 따 먹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미래를 씹는 것과 같은 그 맛에 얼마나 실망하고 후회스러웠을까, 결국 모두 그르치는 결과가 되고 말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참으로 옛날 같은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연이며, 또한 담긴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엄하신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것처럼 먹고 싶었던 그 서양배에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연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깨닫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면 잘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희한한 서양배 맛에 비할 바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서양배가 바로 Bartlett pear 라는 것을 미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보니까 얼마 안가서 그 맛있던 서양배에 시큰둥해졌습니다. 귀할 때에는 것처럼 애타서 바라던 것인데, 흔해지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전면에서 계속〉 으로부터 독립(그 유명한 San Martin 장군에 의해), 20세기 초 2차 대전 중에는 한때 세계 4-5위의 경제 대국, 그 후 군사 독재정권으로 계속 고생하다 1970년에 Dirty War (=Falkland War)로 곤혹을 치르고 전략한 아르헨티나 역사의 중심으로, 최근 새 교황을 배출한 도시로, 이 나라의 인구 집중지역인데 버스로 도시를 가로 지르며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약 30여년 전에 최초로 한국이민사를 연 이 나라에 카톨릭 재단의 주선으로 온 한국인들이 배정받은 도시 밖의 steppes에서 살지 못하고 도시 내로 들어와 한곳에 살며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시작한 가내 원시적 textile business가 주업이 되었는데 Jewsih부터 어렵게 상권을 이어받아 현재는 2, 3세의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의 의류업계를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왠,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 보다 파티에 나갈 때 입을 새 옷을 사는 게 우선이어서 이 장사는 장래성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한국인의 반복된 이민역사인데 이곳이 원조(?)인것 같다.

오랫동안 원했던 Patagonia 여행 후 동문들의 예지와 노익장을 언제 다시 볼까 생각하면서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 신대륙의 자랑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 산들의 사진위에 여행 중 만났던 동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상상해 본다.



# 웃음이란

이 덕 승(60, 남가주)

‘웃음’이란 단어가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글 사전에는 웃음이란 ‘웃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웃는 것도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을 저술한 희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타락의 가장 완벽한 징표이다.”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언어의 나열이 무뚝뚝해서 그런지 웃음의 정의라는 느낌이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웃음이란 위트(wit)나 유머(humor)에 반응하는 즐거운 표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간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위트는 우리말로 지혜나 재치를 의미하고 유머는 농담이나 익살스럽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트는 우리에게 지적인 웃음을 주고 유머는 정적인 웃음을 선사해 줍니다. 웃음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개나 돼지가 웃었다는 예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대고 돼지는 먹을 것만 공급해 주면 최상의 만족을 느낍니다.

‘웃으면 천국, 화내면 지옥’이란 금언이 있습니다. 항상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라든가 ‘웃으며 한 말에 초상한다’라는 속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임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웃음을 산다’라는 말은 웃음꺼리가 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웃음을 판다’라는 말이 괜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웃음을 판다’라는 말은 화류계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즐겁게 웃으면서 읽는 글을 ‘심골범골’이라고 합니다.

웃음이란 단어의 한자어에는 미소(媚笑)와 미소(微笑)가 있습니다. 미소(媚笑)는 아양을 떨며 아첨하듯이 웃는 웃음이고 미소(微笑)는 소리를 내지 않고 방긋이 웃는 웃음입니다. 마치 모나리자의 신비한 웃음처럼 말입니다. 미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기소’입니다. ‘올다가 웃으면 거시기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금방 올다가 웃는 여자’를 아

까운 여자라고 합니다. ‘웃음꽃이 피었다’라는 말은 듣기에도 좋은 말입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 자체가 곱고 예쁘는데 여기에 웃음을 더하고 보니 꽃들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한 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너무 잔잔하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세게 일면 앞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웃음바다’야말로 ‘웃음’이란 것발을 뜻대 위에 높이 달고 리드미한 파도를 좌우로 가르면서 희망의 나라로 향해 떠나는 유람선에 탄 행복한 사람들라고 여겨집니다.

‘웃는 낮에 침 뱉으라’ 그렇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사람’은 아무리 우스운 얘기를 해도 절대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문만복래(素門萬福來). 웃으면 복덩어리가 절로 들어옵니다.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笑一老一老).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화를 낸 만큼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웃음’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활력소이며 ‘웃음’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는 보약중의 보약입니다. 웃음 만만세!



# 2014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 Celebrity Solstice 7 Night Alaska Sawyer Glacier Cruise



**크루즈 일정: 2014년 5월 16일(금) ~ 5월 23일(금) - 7박 8일**

**신청 마감일: 2013년 9월 10일**

- 1일차 2014년 5월 16일(금): 시애틀, 워싱턴주 오후 5시 출발
- 2일차 2014년 5월 17일(토): 해상
- 3일차 2014년 5월 18일(일): 케치칸, 알래스카에 오전 7시 도착, 오후 4시 출발 (정박)
- 4일차 2014년 5월 19일(월): 트레이시암피오르드, 알래스카에 오전 6시 도착 저녁 10시 출발 (해상)  
2014년 5월 19일(월): 주노, 알래스카에 오후 1시30분 도착, 저녁 10시 출발 (정박)
- 5일차 2014년 5월 20일(화): 스케그웨이, 알래스카에 오전 7시 도착 오후 6시 출발 (정박)  
2014년 5월 20일(화):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에 오후 4시30분 도착 저녁 10시30분 출발 (해상)
- 6일차 2014년 5월 21일(수): 해상
- 7일차 2014년 5월 22일(목): 빅토리아,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 오후 6시 도착 저녁 11시59분 출발 (정박)
- 8일차 2014년 5월 23일(금): 시애틀, 워싱턴주 오전 7시 도착

###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실 내용

제31차 학술대회 등록비: \$300 / 회원  
 제31차 학술대회 크루즈 참가비: \$100 / 참석자  
 (참가비는 하선 당일 항구에서 공항까지의 그룹 교통편,  
 사진 제작 및 우송비의 행사동안의 여흥경비임)

보내실 곳: SNUCMAA Inc.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50

\* 해상에서의 학술대회 및 일반 프로그램 등 자세한 일정은  
 다음호 시계탑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사로 지불하실 내용 (크레딧 카드 혹은 수표)

\*선실 금액(1인당):

- 09 - Inside Stateroom \$97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179.26
- 08 - Ocean View \$1,09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299.26
- 2C - Balcony \$1,25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459.26
- 2B - Balcony \$1,329 (Cruise Fare) + \$200.26 (Taxes & Fees) = \$1,529.26

예약금: deposit는 신청을 하시면서 \$500/2인으로 합니다.  
 잔 금: final payment는 2014년 2월 15일 이전에 완불이 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청서 또는 시계탑 7면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여행사 (215) 260-5041, (813) 667-1008로 하여 주십시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